

# 로버트 A. 피터슨 박사, 누가-사도행전 신학, 세션 9, 누가복음 교회, 2부, 마살, 잃어버린 자를 구하기 위해

누가복음-사도행전 신학을 강의하는 Dr. Robert A. Peterson입니다. 이것은 세션 9, 로버트 A. 피터슨, 누가복음 교회,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 2부, 그리고 I. 하워드 마살, 잃어버린 자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과 함께 신학에서의 누가복음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에 나오는 교회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강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없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올 것입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에피소드는 은혜를 받는 자,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장입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다음에 우리는 탕자, 곧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두 아들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작은 딸이 그 아버지 아버지께 말씀드려 재산에서 내게 올 몫을 내게 주소서 하거늘

그리고 그는 자신의 재산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작은아들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모아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방탕한 생활로 재산을 낭비했습니다.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심한 흉년이 들어 그가 궁핍하게 되매 그래서 가서 그 나라 시민 중 한 사람에게 가서 사니 그가 그를 자기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돼지들이 먹는 쥐엄 열매로 배불리 먹고 싶어 했지만, 그에게 아무것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하더라 나는 일어나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말씀드리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에 죄를 얻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라

저를 당신의 품꾼 중 하나로 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그의 아버지에게로 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그를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에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속히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 먹게 하고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하더라. 이로 인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는 잃었다가 다시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축하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그의 형, 큰 아들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음악과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그 하인 중 한 사람을 불러 이것이 무슨 뜻인지 물었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동생이 오셨는데, 당신의 아버지가 그를 무사히 돌려받았다고 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화가 나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치료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아버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시옵소서,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한 번도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나이다.

당신은 나에게 친구들과 함께 축하할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창녀들과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먹어버린 당신의 아들이 오자, 그를 위해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애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니라

이를 축하하고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 있다. 그는 잃었다가 다시 찾았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물건이나 사람을 다루는 세 가지 비유를 담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 4절에서 7절; 잃어버린 동전, 8절부터 10절; 잃어버린

아들(11절부터 32절). 잃어버린 아들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그는 길을 잃었으며 34절과 마지막 32절에서도 발견됩니다.

서문 구절은 비유의 무대를 마련합니다. 이 세 비유(세리와 죄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1절과 2절에서 예수님이 죄인들과 우정을 나누신 것에 대해 스스로 불평했습니다. 장이 펼쳐지면서 예수님은 죄인들과의 교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는 1절과 2절에 소개된 두 그룹에 대해 언급할 것입니다. 양 100마리를 키우는 목자가 한 마리를 잃었습니다. 그는 99마리를 남겨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찾습니다.

이 비유는 잃어버린 것을 찾은 기쁨을 기념합니다. 목자는 찾은 양을 기쁘게 어깨에 메고 집으로 데려갑니다(5,6절). 그는 자신이 찾은 것으로 인해 이웃을 초대하여 함께 기뻐했습니다(6절).

예수님은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명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더 기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세리들과 죄인들에게 회개를 외치시고,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독선적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꾸짖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잃어버린 동전을 찾아 찾은 여인에게도 동일합니다.

그것을 찾은 후 그녀는 친구들을 파티에 불러서 함께 기뻐하라고 말합니다(9절). 다시 한 번, 예수님께서서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 기뻐한다는 말씀을 인용하여 요점을 말씀하셨습니다(10절). 독자들은 그 여자가 파티를 위해 발견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썼다고 비난했습니다. 동전은 가치가 있었다.

Edwards는 이러한 개념을 정정합니다. 제임스 에드워즈, 누가복음, 437페이지, “이 비유는 경제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것입니다. 아마도 잃어버린 자를 찾을 때까지 찾고 일단 발견되면 그들의 회복을 축하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어리석음일 것입니다. 버리다. 하나님의 기쁨에는 가격표가 없습니다. 큰 구령, 16:26 괄호 안의 느낌표, 이 시점에서 바리새인들과

하나님의 왕국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습니다. 예수께서 많은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저희가 원망하거니와 그 중에 한 사람이 회개하면 온 하늘이 기뻐하느니라.”

마살은 웁습니다. “처음 두 비유를 적용하면 그러한 기쁨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실 때 느끼시는 기쁨을 반영한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마살의 누가복음 주석, 597쪽.

예수께서는 회개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태도와 유대 지도자들의 태도 사이에 큰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잃어버린 물건이나 사람은 한 비유에서 다음 비유로 넘어갈수록 더욱 중요해집니다. 잃어버린 양은 백 마리 중 한 마리에 불과했습니다.

잃어버린 동전은 열에 하나였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은 둘 중 하나였습니다. 따라서 잃어버린 것의 가치는 이 비유를 통해 증가합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세 인물, 즉 한 남자와 그의 두 아들을 소개하면서 시작하십니다. 작은 아들은 일찍부터 유산을 요구하며 아버지를 모욕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요청을 기꺼이 받아들였고, 그 아이는 떠났습니다(12절).

얼마 후 그는 재산을 모아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났고 그곳에서 방탕한 생활을 하며 재산을 낭비했습니다. 가진 것을 다 써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심한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그 아이의 곤경은 더욱 심해졌습니다(15절).

그러나 그 소년은 배가 고프고, 돈 한 푼 없고, 친구도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상황을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품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사과하고 품꾼으로 일자리를 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17절, 19절).

그는 연설을 연습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18,19절). 그리하여 그가 자기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멀리서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그를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돌아온 아들은 연습한 연설을 시작했지만 끝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아들을 위하여 겹옷과 반지와 신을 가져오라고 명하여 잔치를 베풀게 하였느니라(21-23절). 아버지의 말은 기억에 남습니다.

먹고 축하합니다. 이로 인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는 잃었다가 다시 찾았습니다.

아버지는 살진 송아지를 잡으라고 명령했고, 잔치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탕자가 돌아오자 모두가 기뻐하지는 않았습니다. 형은 이 소식에 대해 매우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춤을 듣고 그 뜻을 물으니 이르되 그 형이 집에 돌아왔으며 형이 그를 무사히 돌아왔으므로 네 아버지가 살진 송아지를 잡았느니라 하더라. 25-27절. 큰 아들은 화가 나서 그 일행에 합류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은혜로운 아버지는 그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거절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위해 여러 해 동안 종살이를 했지만 친구들과 함께 축하할 염소 한 마리, 살진 송아지 한 마리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화난 아들은 매춘부들과 함께 돈을 낭비한 작은 아들에게 아버지가 바로 그런 짓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거친 말에 부드럽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아들이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모두 네 것이다.

네 형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는 잃었다가 다시 찾았습니다. 31~32절입니다.

우리는 세 가지 비유, 특히 마지막 비유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에 관해 많은 것을 배웁니다. 누가는 1절과 2절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세

가지 비유를 모두 읽게 하려고 합니다. 탕자는 세리와 죄인을 대표하고, 형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대표합니다. 하늘은 세리와 죄인을 찾는 것을 포함하여 잃어버린 자를 기뻐하며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식탁 교제 선택에 대해 불평한 것처럼, 형은 집에 돌아온 탕자를 위해 잔치를 열어주는 것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Green의 취급은 인용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에 대한 조엘 그린의 논평.

예수님의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수용하는 태도로 인해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들의 회복에 대한 기쁨의 응답이 신성한 필요성을 주장함으로써 응답하십니다.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처럼, 그는 회복된 잃어버린 자들을 식탁에 초대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합니다. 여기에는 세금 징수원과 죄인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식탁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비유에서 책임감 있고 순종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구속 목적과의 연대에는 실패한 큰 아들로 표현된 자신들을 발견하도록 초대받습니다.

더욱이, 죄 많은 여인에게 기름부음을 받은 예수의 이야기에서도 이 비유는 끝이 열려 있습니다. 보크 말이 맞아요. 누가복음 주석 1권, 1320페이지.

“그 이야기는 우리를 맴돌게 합니다. 형이 무엇을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의 독자들이 적절한 대응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비유를 남겨 두었습니다. 그들이 형제의 입장이라면 안으로 들어가겠습니까? 그들은 기쁨을 함께 나눌 것인가? 그들은 잃어버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도록 돕는 기회에 동참할 것입니까? 죄인을 찾으라는 예수님의 도전에 어떻게 대응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6회는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께서서 구원하신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보라,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키가 작아서 군중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달려가서 그분을 보기 위해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분께서 그 길로 지나가시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 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그래서 급히 내려와서 기쁘게 영접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그들은 모두 수군거렸다. 그분은 죄인의 집에 손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나이다 그리고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배로 갚아 주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께서 눈먼 거지를 고치신 이전 에피소드의 시작 부분에서 그는 여리고에 접근하셨습니다(눅 18,35). 이 페리코프에서 그는 같은 도시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19:1). 그러한 움직임은 예수의 여행,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는 누가복음의 여행 이야기, 그리고 그의 속죄의 죽음과 부활의 특징입니다.

이 여행 중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많은 교훈을 가르치십니다. 즉시 삭개오는 사람, 세리장, 부자로 소개됩니다. 2절. 유대인들은 로마의 부정직한 대리인으로 간주되는 세리들을 욕했습니다.

이 언급 외에는 세리장으로서의 삭개오의 지위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는 로마에서 그를 위해 일했던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 있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리들은 재정적으로 부유했고, 삭개오는 그의 리더십 역할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했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뵈고 싶었지만 군중이 모여 있어서 볼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너무나 재주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는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린은 삭개오가 탐구에 나선 사람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는 성인 남성의 지위와 지역사회에서 부유한 사람의 지위에도 불구하고 나무에 오르는 수치심을 견뎌냈기 때문입니다.

Green, 누가복음 669.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로 결심했고, 성공했지만 그의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사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바라보시고 빨리 내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단어에 매우 익숙합니다. 그의 집에 머물러야 합니다.

5절. 삭개오는 민첩하게 내려와 그를 기쁘게 환영했습니다(6절). 알려진 죄인과 환대를 나누고자 하는 예수님의 열망은 군중의 불평을 불러일으킵니다(7절). 멸시받는 자들을 포용하라는 예수님의 이전 반응과 유사합니다. 5.30.15.2. 마태복음 9.6.7. 11. 삭개오의 다음 말은 기이하다.

삭개오는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며 공개적으로 고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로 갚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9.8. 바흐는 문화적 배경이 삭개오의 약속의 정도를 보여준다고 알려줍니다. 유대교에서는 자기 소유의 20%를 기부하는 것을 관대하게 여겼습니다.

강탈에 대한 법적 배상은 20%였습니다. 레위기 5:16. 민수기 5:7. 그러나 삭개오는 도적질하는 자들에게 부과된 모세의 율법보다 더 가혹한 이중 처벌을 가정합니다(출 22:1 및 21:37). 이 의무를 떠맡음으로써 삭개오는 Darrell Bock의 표현을 사용하여 Earl Ellis, 누가복음 2판, 221페이지를 인용하여 변화된 마음을 표현하는 감사의 제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삭개오의 말은 측정해 보면 더욱 인상적입니다. 부유한 통치자의 반응에 반대합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관원에게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부자이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 심히 근심했습니다, 누가복음 18:23. 삭개오의 구원의 진실성에 대해 우리가 의심을

품고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그 의심을 없애줍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9절. 삭개오의 결심은 바로 다음 절인 10절에 제시된 예수님의 세상에 오신 목적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이 구절이 반복되어 여러 학자들에 의해 누가복음의 슬로건이자 모토로 간주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나 하워드 마샬(Howard Marshall)은 이 구절을 셋째 복음의 모토로 올바르게 간주합니다. “누가복음의 중심 주제는 예수께서 인간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요약하는 본문을 찾고 있다면 그것은 의심할 바 없이 누가복음 19장 10절일 것이다.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Marshall, Luke, 역사가 및 신학자, 페이지 116.

이 구절은 복음주의적 보편주의에 대한 누가의 주장을 강조하기 때문에 신약성서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돕습니다.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셨고, 모든 사람, 심지어 사회의 소외된 사람들까지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누가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존경받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어린이와 세리들을 구원하려는 예수님의 특별한 관심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의 일곱 번째 교회의 예를 목격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24:44-49입니다.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시고 제자들을 설득하여 예수는 유령이 아님을 깨닫게 하신 후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것이 이것이니 곧 모세의 율법과 율법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니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성취되어야 합니다.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르시되 기록하기를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 삼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고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보라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결과 그들은 놀라고 겁에 질려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누가복음 24:37. 예수께서는 손과 발에 있는 성흔을 보여 주시며 자기가 바로 자기임을 확신시키셨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기뻐서 믿지 못하고 놀라고 있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먹을 것이 있느냐?” 그들은 그에게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주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가져다가 그들 앞에서 먹었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유령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그들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2절과 43절. 그런 다음 예수께서는 자신의 이전 예언에 비추어 제자들에게 자신이 나타나신 것을 해석하셨습니다.

그가 살아 계신 것은 44절,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함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사건이 일어난다는 누가복음의 주제를 다시 접하게 됩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런 다음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성경, 특히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는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빛을 비추셨습니다. 45절과 46절. 그러나 그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성서는 더 많은 것을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은 이전에 암시하셨던 것과 죄 사함과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그의 이름으로 전파되어야 함을 공개적으로 밝히십니다. 예수님은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좋은 소식이 제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전해진다는 뜻으로 오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의 두 번째 책에서는 예수께서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전해져야 한다는 뜻으로 말씀하셨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48절.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하시니라. 이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말을 예상하는 것인데, 여기서 유다를 대신할 자격은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께서 승천하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드나드시던 기간 동안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로부터.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은 우리와 함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21 및 22. 제임스 에드워즈는 누가복음 24장 46절과 48절의 사상을 포착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위임은 예루살렘 공동체에 사도적 권위를 부여하고 열방에 대한 카리스마적 선교를 위임합니다.

예수께서는 경전에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부활하셨다고 말하고 있음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런 다음 그분은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죄 용서에 이르게 하는 회개의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47.

그분은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제 그는 그들이 성공적인 전도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보라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49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이해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날에는 확실히 이해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 전도라는 어려운 일에서 그들을 담대하게 하기 위해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게다가 영은 구원받지 못한 청중을 하나님께로 개종시키는 일을 할 것입니다. 11명은 예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물론 사도행전의 처음 두 장에서는 그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하워드 마셜(Howard Marshall)은 이 구절을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의 비슷한 주제에 관한 본문과 연관시켜 도움을 줍니다.

누가복음에 대한 마셜의 주석, 페이지 903, 904. “이 자료는 대위임문인 마태복음 28장, 16장부터 20장, 요한복음 20장 21절, 23장과 연결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과 23절에서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시며 영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용서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 글과 마태복음 28장, 요한복음 20장 사이의 연관성은 분명합니다.”

누가는 마태에게 열방으로 가라는 사명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약속을 전합니다. 그분은 요한에게 영의 약속과 죄 용서에 대한 언급을 나누십니다. 그러므로 공통의 전통이 이러한 설명의 기초가 된다는 것은 의심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인 핵심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널리 전파하고 죄 용서를 베풀라고 명령하셨으며, 그들의 임무에 신성한 능력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메시지, 제자들의 사명, 성령의 능력 있는 임재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누가복음에서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우리의 연구를 마무리하는 적절한 방법입니다. 이것은 또한 동일한 세 가지 주제를 적용하고 확장하는 누가복음의 두 번째 부분인 사도행전으로 전환하는 데 적합한 방법입니다.

주님 뜻대로, 우리는 지금부터 몇 차례 강의를 할 것이지만, 이제 우리는 누가복음에 대해 계속하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I. Howard Marshall의 매우 훌륭한 책인 Luke Historian and Theologian, 7장, To Save the Lost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이 책의 중심 주제는 인간의 구원이다. 메시지를 요약하는 본문을 찾고 있다면 의심할 바 없이 누가복음 19장 10절일 것입니다: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구절로 누가는 갈릴리와 유대에서 예수께서 사역하신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파운드의 비유가 포함된 바로 다음 부분(눅 19:11-27)은 예루살렘 입성을 고대하고 있으며 이전 부분이 아닌 여기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부분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그의 전도 사역의 정점에 있으며 그 의미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이 특징을 사역의 결정적인 특징으로 꼽는 데 있어서 누가는 다른 전도자들과 비교할 때 참신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복음 전통에 새로운 모티프를 부여하지도 않았습니다.

마가복음의 강조점은 다소 다릅니다. 현재 마가복음의 목적과 특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마가가 자신의 책 내용과 관련하여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는 예수께서 메시지를 전하신 것처럼 자신도 메시지를 전하는 자로 여깁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의 내용은 받는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마가는 메시지의 핵심 요소를 요약한 후에는 메시지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14 이하. 그의 관심은 훨씬 더 예수라는 인물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의 목적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리고 최고로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당신은 나를 누구라고 말합니까?'입니다. 마가복음 8:29. 증거는 부분적으로 그리스도의 신성한 권위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에게 계시되는 비밀스러운 깨달음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구성됩니다. 그것은 또한 예수께서 자신의 임무가 하늘의 영광과 승리를 얻기 전에 고난을 받는 것임을 밝히시는 가르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따라서 제자도에는 추종자들이 동일한 고난의 길을 따르려는 준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화가 허용된다면 마가는 예수라는 인물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이 그의 복음이 됩니다. 마태복음에 표현된 다양한 모티브는 요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두 가지 주요 주제가 지배적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구약과 유대교에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주된 목적 중 하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메시아이고 결과적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참된 백성임을 입증하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는 마가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을 반복하고 예수가 유대인 메시아임을 나타내는 특징을 강조합니다. 그의 또 다른 주요 주제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마태는 의식적으로 예수의 말씀을 모아서 주제별로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활동에 대해 주는 지배적인 인상은 그가 추종자들에게 상당히 체계적인 교훈을 준 교사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가 새로운 율법주의를 제시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그는 구원이 예수님의 말씀에 있다고 믿습니다. 요한복음과 누가복음 사이에는 두 복음서 기자 또는 적어도 그들의 복음서의 기초가 되는 전통이 어떤 방식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특정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간략하게 고려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여기서 예수는 하나님을 계시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로 보여진다. 영생의 범주는 요한복음의 근본적인 구원론적 개념이며,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아버지와 얼마나 가까운 자녀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러한 용어로 제시됩니다.

복음의 목적은 비록 더 넓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대한 이 간략한 특징을 통해 우리가 누가의 가르침을 더 자세히 펼치기 전에도 처음부터 구원의 주제와 구원의 분배자로서의 예수가 누가의 독특한 특징이라는 것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강조점은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일과 인간에게 제공하기 위해 오신 일의 긍정적인 특성에 더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표현하기 위해 누가가 사용한 어휘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다지 눈에 띄지 않습니다.

동시에 누가복음의 목적은 다른 복음서의 목적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각 복음서는 복음적이다. 그들 각자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제시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서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강조하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의 가르침을, 요한복음에서는 그분 안에 나타난 영생을 강조하는 반면, 누가복음에서는 그가 가져오는 구원의 축복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누가의 접근 방식은 다른 복음서의 접근 방식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넓은 의미의 구원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는 자신의 용어에 있어서 전적으로 혁신가도 아닙니다. 구원의 개념은 신약성서의 가르침의 기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신약성서에서 가장 오래된 저작물 중 하나이며, 많은 학자들은 이 서신을 현존하는 바울 서신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비록 그것이 바울의 최초의 저작이 아닐지라도, 우리 생각으로는 갈라디아서가 아마도 그보다 앞선 것 같습니다. 그 날짜는 초대교회에서 구원이라는 용어의 시대를 확립하려는 우리의 현재 목적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그것이 기독교인의 개종을 가리키는 현재 용어임을 나타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16. 동일한 용어가 그의 서신 전체에 다시 나타나며 갈라디아서와 골로새서에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른 신약성경 저술들 중에서 요한 2서와 3서만이 그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 용어가 초기에 생겨났을 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에 널리 퍼져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더 뒤로 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바울이 기존의 공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에는 의심할 바 없이 원시적인 신앙고백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최초의 설교에 대한 요약을 시작하고 이어서 이 복음으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주석을 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2절. 이것은 그에게 복음의 원시적 요약이 구원의 개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약속된 구세주.

삭개오의 이야기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의 사역과 수난으로 이어지는 사건의 절정을 이루고 있다면, 이어지는 내용의 패턴을 설정하는 시작 장면은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께서 설교하시는 장면입니다(누가복음 4장) . 16-30. 일반적으로 여기에 기록된 사건은 마가복음 6:1-6의 사건과 동일하며 누가가 사역을 설명하는 프로그램적 특성 때문에 이 사건을 이야기에 제시했다고

가정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나아가 이 시점의 이야기가 주로 마가복음에 대한 누가의 편집에 기인한 것이라고 간주합니다. 이 두 가지 요점이 타당하다면, 현재 형태의 사건은 누가가 그의 독자들이 사역의 이야기에 어떻게 접근하기를 바랐는지 나타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느 가정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야기의 전통 분석과 편집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지만 많은 학자들은 마가복음이 아닌 다른 출처가 이야기의 일부 또는 전부에 활용되었다는 데 동의합니다. 더욱이 H. Schurman은 예수의 사역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설명하는 대체 자료의 존재에 대한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마태와 누가가 사용한 이 책에는 적어도 누가복음 4:14-16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역 초기에 나사렛 방문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제안이 옳다면, 누가가 사역의 모형을 설정하기 위해 이 장면을 구성했다고 주장하는 주장의 강력한 부분은 지지에서 파생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가 사역의 시작에 관한 이 특별한 보고를 다른 어떤 보고보다 사용하기로 선택한 것은 여전히 사실이며, 그러므로 그것이 그의 눈에 어떤 의미가 있었음에 틀림없다.

우리는 이러한 관점에서 합법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 부분은 예수께서 회당 예배에서 선지자들의 교훈을 읽으려고 일어나셨고, 이사야 61장 1-2절을 읽으신 후, 이 성경이 오늘 이루어졌다고 선언하여 일행을 놀라게 하신 일을 설명합니다. 청문회에서 달고 인용하십시오. 우리가 즉각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은 이야기의 이 부분이다.

첫째, 여기서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구약성경을 인용하시고 그 성취에 관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인용된 구절은 선지자가 1인칭으로 말한 것이므로 분명히 그 자신의 사명감을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언의 바로 앞 장들에서 그토록 두드러지게 등장하는 여호와의 종을 말하는 사람과 동일시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그 구절은 예언적이라는 의미에서 예언적인 것으로 간주되며, 그 구절이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예언에는 그분의 인격과 활동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수의 활동이 종말론적 활동으로 간주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뜻이다.

즉, 그의 활동은 구약성서에서 미래에 일어날 일로 예언된 일로 간주된다. 그리고 수백년의 기간이 예언과 마지막 때를 분리시켰으므로, 예언과 그 성취를 분리하였으므로 그 예언은 마지막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간주되었음이 확실합니다. 마지막 때의 사건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결론이다.

이는 엄밀한 의미에서도 예수님의 사역을 종말론적 사건으로 본다는 뜻이다. 이는 누가복음의 다른 구절들의 증거에 의해 입증됩니다. 우리는 엘리야의 출현에 대한 구약의 예언에서 따온 세례 요한이 주님을 위한 길을 준비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탄생 이야기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예수 자신이 다윗의 집의 약속된 메시아로 언급되었습니다. 이러한 요점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다루어지며, 이어서 말라기 3장 1절이 세례 요한의 사업을 설명하기 위해 인용되고, 예수님의 사역은 이사야 29장 18, 35절의 일련의 문구로 설명됩니다. 3, 61:1. 여기서도 인용된 구절들은 마지막 때에 성취될 것으로 예상되는 구절들이다.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10장 23절과 24절에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왕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느니라.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우리는 다음 시간에 역사가이자 신학자인 누가복음에서 하워드 마샬의 좋은 메시지를 계속해서 다루겠습니다.

누가복음-사도행전 신학을 강의하는 Dr. Robert A. Peterson입니다. 이것은 세션 9, 로버트 A. 피터슨, 누가복음 교회,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 2부, 그리고 I. 하워드 마샬, 잃어버린 자를 구하는 것입니다.